

# 가족배경변인과 시간제취업경험이 청소년의 직업소망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 \*

## Influence of Family and Work Experience on Occupational Aspirations of Adolescents: A Path Model

옥 경 희  
Ok, Kyung He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theoretical model from which to test the influence of family background and work experience on the level of rural high school students' (N=381) occupational aspirations. In the basic model, mother's occupation directly influenced occupational aspirations. Father's education influenced occupational aspirations directly and also indirectly through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number of working hours per week had a direct and negative influence on academic achievement. In a different path, working hours had an indirect positive influence on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parents' different treatment which especially focused on the fact that parents gave students more freedom compared to the relationship they shared before the students began to work. Enjoying school, studying homework, and extrareading were influenced by students' number of working hours. Two variables, extra reading and job characteristics, predict the social acceptance work attitudes which are a direct predictor of occupational aspirations. Academic achievement had a greater total effect on the level of occupational aspirations than any other variables.

### I. 서 론

인간성장을 단계화하여 파악하고 있는 발달 이론은 각 단계마다 다른 단계들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중요한 의미, 즉 각 단계나름대로의 특성을 승인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여러 발달

단계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청소년기는 특히 각 개인의 진로발달문제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때 그 어느 발달단계보다도 더 주목할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 그 전단계들 또한 개인의 진로발달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긴 하나, 청소년기가 진로발달과정의 결정

\* 본 논문은 1993년 North Carolina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적인 기초단계(critical initial period)라는 점에 대해선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청소년기를 대체로 14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들이 포함되는 단계라고 정의하는 발달학자 Super(1957)는 청소년들이 단순하고 막연한 생각으로 자신들의 진로를 설계하고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과 가치관 그리고 흥미 등과의 조화여부를 따지면서 진로문제를 숙고하고 판단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인지발달과 더불어 자아개념이 명확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도 더욱 현실적으로 되어간다고 그는 말한다. 어떤 특정한 직업을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종사하고 싶어하는 직종에서 요구되는 역할이나 자격요건과 본인들의 성격과 적성이 상호부합할만한가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고 그 탐색과정을 통해 현실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적응력을 재고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로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청소년 개개인들의 자아발달이지만(Gottfredson, 1981; Super, 1981; Van den Daele, 1968), 그들의 가족 또한 그들의 사회화 과정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가하여 진로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가족성원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일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더 나아가서는 특정 분야의 직업을 선호하게 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질적이고 양적인 정보와 자원을 공급한다(Krumboltz, 1981; Mortimer & London, 1984).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도달하게 되면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

어나서 더욱 독립적이 되고 부모와 실제적으로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을 받게된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청소년기에 속하는 자녀들에게 수행하는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여 개인들이 궁극적으로 특정한 직업을 갖게 되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인과적인 관계에 관심을 갖는 지위 획득본자들은 가족의 지위,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들의 교육과 직업소망, 나아가 직업성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Blau & Duncan, 1967; Haller & Portes, 1973; Little, 1957).

가족배경이 자녀들의 직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직업사회화 과정은 또래들간의 상호작용이나 학교내에서의 각종의 사회화학습 과정에 의해 역시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시간제취업에 종사함으로써 해서 직접적인 직업세계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시간제취업을 통하여 얻는 경험이 직업사회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제취업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장래의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가치, 버릇, 기술, 지식, 및 태도 등을 습득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다(Carnegie Commission on Policy Studies in Higher Education, 1980; Hamiton & Stewart, 1980; National Commission on Youth, 1980).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의 시간제취업 경험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비행행동을 배우게 된다고 주장한다(Behn, Carnoy, Carter, Crain, & Levin, 1974; Greenberger & Steinberg, 1981). 위의 주장

들과는 대조적으로 일찍부터 시간제취업을 경험하는것은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나 가치, 그리고 미래의 직업선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Steinberg & Greenberger, 1980; Steinberg, Greenberger, Vaux, & Ruggiero, 1981).

진로발달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직업소망에 대한 연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직업소망은 장래에 종사할 직업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위획득론자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직업소망이 미래의 직업을 예측해 주는데 영향력있는 변인이라고 주장한다. Marini (1978)는 고등학교 시절의 직업소망과 졸업 6개월후 직업성취와의 일치도가 50%~80% 정도이고, 졸업 5년후와는 50%의 일치도를 보이며, 남성들의 경우 직업소망과 성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년후에 15%~25%의 일치도를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지위획득론자들은 진로발달을 연구할때 직업소망이 단지 직업성취를 예측하기 위한 변인이라고 보았으나, 고등학생들의 직업소망 자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간제취업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의 직업소망이 시간제취업 경험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배경 변인과 시간제취업의 경험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소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세우는데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소망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모델을 제공함으로 고등학교 학생들, 그들의 부모, 및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직

업소망에 대한 연구모형을 세우기전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청소년들의 직업소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조사

### 1. 가족배경

사회화과정의 큰 몫을 담당하는 가족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경제적 지위는 가족의 구조나 가족의 형태와 같은 변인들보다 더욱 자녀들의 직업소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배경과 청소년들의 직업소망간의 밀접한 관계는 가족배경에 따라서 자녀들이 진로발달을 위한 여러가지 기회를 제공받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볼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Blau와 Duncan(1967)은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척도의 하나인 아버지의 직업은 아들들의 교육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또한 장래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Kerckhoff(1972)도 아동들이 장래에 그들이 갖게 될 생활의 지위나 직업성취 등을 기대하는 정도도 그들이 처해있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속한 가족의 청소년들은 가족환경이 높은 지위에 속한 청소년들 보다 지위가 낮은 직업 그리고 낮은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Sinclair, Brouch, & Miller, 1977). 아동의 기대정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진로선택을 향한 부모들의 기대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Shapiro와 Crowley(1982)는 청소년의 직업 소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보다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보다 적절한 측정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높은 지위의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교육 그리고 훈련 등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부모들은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적절한 역할모델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별히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비해 자녀들의 학습능력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Leibowitz(1977)는 주장한다. Leibowitz는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달라지며, 어머니의 교육정도와 그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와 시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녀의 학습력이 증진되고 결국은 직업선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들의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알아 보았을 때 Banducci(1967)는 취업모들의 자녀인 고등학교 상급생들은 비취업모들의 자녀들보다 직업성취에 대한 기대를 훨씬 높게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Marini(1972, 1974)는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고등학교 자녀들의 직업소망이나 기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 2. 학업성적

많은 연구자들은 흔히 평균성적이라고 일컫는 학업성적과 직업소망간의 관계가 정적상관

이 있음을 보고한다. Caro와 Pihlblad(1965)는 높은 학업성적은 청소년들이 진로설정을 할 때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고 주장하면서 학업성적이 뛰어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더욱 높은 계층에 속한 직업들을 소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Marini와 Greenberger(1978)는 종래의 어떤 연구보다도 학업성적이 직업소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Howell과 Frese(1982)는 학업성적이 학생들에게 자기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적을 참작하여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선행연구(Mortimer & Finch, 1986; Reitzes & Mutran, 1980)들도 제시되었다.

학업성적이 미래의 직업소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과는 달리, 학업성적은 가족배경과 직업소망을 연결하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Hout & Morgan, 1975). 또한 학업성적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격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진로발달을 예측하는 Wisconsin Model은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의 격려가 장래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의 격려정도는 자녀들의 학업성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은 실제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었다.

## 3. 시간제취업 경험

청소년기에 취업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 측면에서 그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준다. 첫째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시간제취업을 위해서 할당하는가 하는 측면이고, 둘째는 그 취업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하는 측면이다. Steinberg와 Greenberger(1980)가 언급했듯이 청소년들의 시간제취업이 그들의 그밖의 학교, 가정, 및 사회에서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청소년들이 시간제취업 경험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어떤 종류의 직종에서 경험하였느냐 하는 차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시간제취업에 할애하는 시간량의 정도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시간제취업을 위한 할당시간량

이미 40여년 전에 시간제취업에 시간을 많이 할당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낮은 성적과 관련이 있다고 Bateman(1950)은 발표하였다. 학생들은 시간제취업에 쏟는 시간만큼 비례적으로 그들의 학교에 대한 애착은 약화되며 이에 따라 학업성적도 떨어진다는 것이 Bateman의 주장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 Hammond(1971)는 고등학교 상급생들을 상대로 시간제로 취업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했을때 두 집단간의 성적이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위와 비슷한 결과들이 다른 연구들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들은 시간제취업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학생들의 성적이 내려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들이었다(Buckman, 1976; Mangum & Walsh, 1977).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서 Steinberg, Greenberger, Garduque, Ruggerio와 Vaux(1982)는 시간제취업 시간량이 어떻게 학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학업참여도를 숙제를 하는 시간, 특별활동 참여시간,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 및 결석횟수로 측정을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시간제취업 시간량은 숙제를 하는 시간, 특별활동의 참여, 그리고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같은 연구자료를 사용한다면 다른 연구에서 Steinberg, Greenberger, Garduque와 McAuliffe(1982)는 단순히 시간제취업 경험유무와 학업성적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정기간 단위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했는가와 학생들의 학업성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Schill, McCartin와 Meyer(1985)는 오히려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시간제취업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일을 통하여 이미 직업에서 성공한 성인의 역할모델에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접근은 좋은 학업성적이 높은 계층에 속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Bowles와 Gintis(1976) 그리고 D'Amico(1984)도 청소년들의 시간제취업 경험과 학업성적과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조기 취업경험은 학생들에게 참을성, 신뢰성 그리고 꾸준함을 가르치고, 이러한 특성들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성들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2) 직업의 특성

직업들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영향을 끼친다(Kohn & Schooler, 1973; Steinberg & Greenberger, 1980). Hamilton과 Crouter(1980)는 초기의 취업 경험 자체가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취업의 유무보다 일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제시하였다. 일의 특성은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의 맥락속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여러가지 활동이나 역할, 그리고 대인관계를 통해 모두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가정하는데 그것은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Greenberger & Steinberger, 1986). 이들은 또한 직업들은 종류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관리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등을 키우는데 차이를 가져오며, 청소년들에게 직업세계에 깊숙히 관여하게 하거나 혹은 사회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성인모델을 만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Greenberger와 Steinberger(1986)는 청소년들의 취업이 진로발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적성이나 개성에 맞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그저 반복적이고 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일을 함으로써 환경적, 인간적 및 대인관계에서 갖게 되는 압력만을 많이 느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압력을 제대로 소화하거나 흡수할 충분한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러한 직업환경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는 직업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시간제취업과 가족관계

많은 연구들이 시간제취업이 학업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반면에, 가족관계에 미치는 시간제취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 청소년들의 가족관계가 시간제취업과는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학업활동이 거의 그들의 생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유시간의 일부분을 취업에 할당한다면 자연스럽게 가족들과의 활동시간은 영향을 받는 것이다. Greenberger, Steinberg, Vaux와 McAuliffe(1980)는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적고 또한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하는 횟수도 적다고 한다.

비록 청소년들의 시간제취업이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는 해도 취업 경험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Steinberg와 Greenberger(1980)는 시간제취업에 종사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더욱 자립적으로 만들고 집에서 더욱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형성하게 되어 가정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들을 책임감있는 사람으로 대우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업인으로써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은 그들 스스로를 성인

과 비슷하다고 느끼게 하고 그 때문에 성인인 부모들과 더 가까운 감정을 갖게 된다고도 하였다. 그렇기에 시간제취업에 경험을 하는 자체가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는 하지만 가족관계를 질적으로 나쁘게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부모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자립적이고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전환된 다른 차원의 건강한 부모와 자녀관계를 확립한다고도 볼 수 있다.

동시에 취업을 하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부모들에게 의존적이지만 한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취업활동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감도 지닌 자녀들인 것이다. 이러한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자녀들에 대해 달라진 부모의 태도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Peters(1987)가 강력히 제시하듯이, 청소년들이 취업에 참여하게 될때 가족관계의 역동력이 변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명백히 이 분야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도구

이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간제취업의 경험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에 관련된 변인들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취업, 교육 및 일에 대한 태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

여 선행연구들이(Clifford, 1992; Goslen, 1989; Steinberg & Greenberger, 1981) 개발한 설문지를 보완, 수정하여 설문지가 만들어졌다.

본 연구에서 쓰여진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 1) 종속변인

종속변인인 직업소망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학업을 마친후에 가장 갖게 되기를 원하는 장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Duncan의 사회경제적 척도 점수를 이용하여 환산하였고 점수의 분포는 6점에서 96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인 직업을 의미한다.

#### 2) 독립변인

(1) 가족배경: ①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학생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8점 Likert식으로 보고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고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 학생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되어있고 그들의 대답을 Duncan의 사회경제적 척도 점수를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2) 학업성적: 학생들의 성적은 자기보고식으로 수집되었으며 그들의 응답분포는 1점(평균 A학점)부터 7점(평균 F학점)에 걸쳐 이루어졌다.

(3) 시간제취업 할당시간량: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시간제취업에 할당하는 시간은 몇시간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였고 학생들이 대답한 실제 시간수를 직접 이용하였다.

(4)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는 두개의 다른 척도로 이루어지는데 ① 부모의 달라진 대우: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지금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을 대우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들 반응은 4점 Likert식으로 1점(“부모들이 보다 많은 자유를 준다”)에서 4점(“부모들이 보다 적은 자유를 준다”)으로 분포되었다. ② 부모님과의 관계 변화: 학생들의 반응은 3점 Likert식으로 분류되었는데 1점(“시간제취업을 하고 난 후 좋아짐”)부터 3점(“시간제취업을 하고 난 후 나빠짐”)으로 분포되었다.

(5) 학점변화: 학생들이 시간제취업에 종사한 후 그들의 성적변화를 보고한 것으로 성적이 5점 Likert식으로 평가되었다. 1점(“일을 한 후 성적이 훨씬 좋아졌음”)에서 5점(“일을 하고 난후 성적이 훨씬 떨어졌음”)으로 측정되었다.

(6) 학업참여: 학업참여는 시간제취업에 따른 학교활동과 관련된 네가지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 변화를 가지고 측정하였는데 ① 학교의 결석횟수, ②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 ③ 숙제하는데 쏟는 시간, 그리고 4) 특별활동 참여시간으로 나뉘어 졌다. 학교의 결석횟수는 5점 Likert식으로 1점(“결석수의 현저한 줄어듦”)부터 5점(“결석수의 현저한 늘어남”)으로,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는 4점 Likert식으로 1점(“전혀 좋아하지 않음”)부터 4점(“항상 좋아함”)으로 측정되었다. 숙제를 하는 시간과 특별활동에 쏟는 시간은 6점 Likert식으로 학생들이 일주일에 평균 숙제와 특별활동에 쏟는 시간을 1점(“2시간 이하”)에서 6점(“21시간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7) 취미독서: 일주일에 학생들이 취미로 하는 독서시간의 양은 6점 Likert식으로 1점(“2시간 이하”)에서 6점(“21시간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8) 직업의 특성: 학생들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학생들이 하고 있는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더욱 향상된 품질 혹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물음에 4점 Likert식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확실히 그렇다”) 중 하나의 항목을 표시하게 되어있다.

(9) 일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세가지의 태도를 사용하였는데 ① 윤리와 일 ② 자기 의존 그리고 ③ 사회적 개방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으로 구성되었고 윤리와 일은 7항목을 포함하여 전체득점 범위는 7점에서 28점으로, 자기의존은 6항목을 포함하여 전체득점 범위는 6점에서 24점, 그리고 사회적 개방은 4항목을 포함하여 전체득점 범위는 4점에서 16점이다. 세 분야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윤리적이고, 자기 의존도가 높으며, 사회적으로 다른 환경에 자신을 개방을 하는 것의 의미한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설문지는 1989년에 North Carolina 농촌 지역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분배되었다. 일정한 훈련을 거친 대학원학생들이 조사를 하였는데 학생들의 성별, 학년, 시간제취업 경험의 유무,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취업을 위한 할당시간량, 그리고 가장 근래에 받은 성적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위와같은 일차자료를 근거로 하여 연





3.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고등학교 학생 1,481명이었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들은 44.2%로 절반이 조금 안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55.8%를 구성하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Yamoor와 Mortimer(1990)의 연구에서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시간제취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는 학년과 반비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급생은 신입생의 세배정도나 많이 취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편에 속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제취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56% 이상의 학생들이 평균 B학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간제취업 경험이 학생들의 미래 직업소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1,481명중 시간제취업을 하고있는 학생 654명만을 조사대상자로 포함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직업소망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기본가설은 청소년들의 가족배경, 학업성적, 시간제취업 할당시간량, 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직업의 특성이 직업소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표 2>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시간제취업을 위한 시간할당량과 직업의 특성은 청소년들의 직업소망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못하다. 네개의 가족배경 변인과 학업성적, 그리고 일에 대한 세가지의 태도는 직업소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 응답자의 성별, 학년, 성적 분포도

특성	일을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집단(654)	집단(827)		
성별	여학생	264(40.40)	448(54.17)	
	남학생	390(59.60)	379(45.83)	
학년	1학년	83(12.70)	220(26.63)	
	2학년	134(20.50)	251(30.39)	
	3학년	206(31.50)	194(23.39)	
	4학년	231(35.30)	161(19.49)	
성적	A	75(11.47)	147(17.78)	
	B	120(18.35)	112(13.54)	
	B	173(26.45)	214(25.87)	
	C	123(18.81)	155(18.74)	
	C	116(17.74)	134(16.20)	
	D	32( 4.89)	41( 4.96)	
	F	6( 0.92)	7( 0.85)	
	무응답	9( 1.38)	17( 2.06)	

네개의 가족배경 변인중 아버지의 교육이 청소년들의 직업소망과 제일 높은 상관관계( $r=.21$ )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직업소망과 아버지의 직업의 상관관계( $r=.12$ )가 어머니의 직업( $r=.18$ )이나 어머니의 교육( $r=.14$ )보다 낮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그들의 장래 직업소망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 $r=.23$ )를 나타냈다. 일에 대한

태도 중에서는 사회개방 태도의 상관관계( $r=.14$ )보다 높은 것으로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6)가 일과 윤리( $r=.14$ )나 자아 의존도( $r=.14$ )보다 높은 것으로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중다 상관관계표

	1	2	3	4	5	6	7	8	9	10
1										
2	.42**									
3	.27**	.25**								
4	.28**	.47**	.38**							
5	.11**	.11**	.11**	.16**						
6	-.05	-.06	-.03	-.10*	-.04					
7	-.09	-.04	-.05	-.07	.06	.27**				
8	-.07	.04	-.07	-.03	.20**	-.01	.13**			
9	-.07	-.08	-.01	-.14**	.16**	.18**	-.01	-.08*		
10	.10*	.16**	.03	.16**	.14**	-.02	-.01	-.00	-.12**	
11	.14**	.15**	.01	.10*	.23**	-.05	-.01	.06	-.13**	.20**
12	-.06	.08	-.05	.08	.19**	.04	.07	.07	-.11*	.21**
13	-.04	-.06	.08	-.03	-.06	.01	-.11**	-.35**	.05	-.04
14	.11*	.09*	.06	.11*	.08*	.01	-.03	.06	-.13**	.05
15	-.06	.02	.04	.04	.09**	.05	.01	.01	.05	.05
16	-.01	-.05	.06	.08	.16**	.01	.02	-.05	-.04	.04
17	.10*	.04	.05	.10*	.17**	.02	-.04	-.08*	-.02	.08
18	-.08	-.02	.03	.10*	.15**	-.01	.01	-.02	-.06	.14**
19	.18**	.14**	.12**	.21**	.23**	-.02	-.02	-.06	-.04	.18**
	11	12	13	14	15	16	17	18		
12	.27**									
13	-.06	-.01								
14	.24**	.09*	-.01							
15	-.03	.07	.04	-.01						
16	.07	.22**	-.03	.13**	.18**					
17	.13**	.13**	.04	.18**	.11*	.57**				
18	.16**	.22**	.04	.20**	.16**	.48**	.39**			
19	.22**	.11*	-.01	.03	.08	.14**	.14**	.16*		

\* $p<.05$  \*\* $p<.01$

- |           |           |           |           |
|-----------|-----------|-----------|-----------|
| 1=어머니의 직업 | 2=어머니의 학력 | 3=아머지의 직업 | 4=아버지의 학력 |
| 5=평균성적    | 6=달라진 대우  | 7=부모와의 관계 | 8=성적변화    |
| 9=취업 시간량  | 10=특별활동   | 11=숙제시간   | 12=학교선호   |
| 13=결석변화   | 14=취미독서시간 | 15=직업 특성  | 16=일과 윤리  |
| 17=자아의존   | 18=사회적 개방 | 19=직업소망   |           |

위에서 언급한 직업소망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덟개의 변인들을 독립변인들로 사용하여 직업소망을 예측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오직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수준, 학업성적, 그리고 사회적 개방태도만이 학생들의 직업소망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인들임이 밝혀졌다.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직업소망에 대한 분산의 10.10%가 네개의 독립변인들에 의해 설명이 되었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학업성적이 변인들 중 가장 큰 직업효과를 가지고 있다. 비록 어머니의 직업수준이 아버지의 학력보다 큰 직접효과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아버지의 학력은 학업성적을 경유하여 직업소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학업성적 다음으로 큰 총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 2. 학업성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으로 구성된 네개의 가족배경변인이 학업성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가족배경변인들 중에서 학생들의 아버지의 학력이 학업성적( $r=.16$ )과 제일 높은 상관관을 보이고 있음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나머지 세개의 가족배경 변인들과 학업성적과는 거의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들의 상관계수는 모두  $r=.11$ 로 밝혀졌다.

시간제취업을 위한 할당시간량은 학업성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16$ )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생들이 시간제취업에

시간을 많이 할당하면 할수록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제취업을 위한 할당시간량은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업참여에 해당하는 특별활동에 쏟는 시간( $r=-.12$ ), 숙제하는데 쏟는 시간( $r=-.13$ ), 그리고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 $r=-.11$ )와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시간제취업을 위한 시간량과 학교 결석횟수와는 아무런 상관도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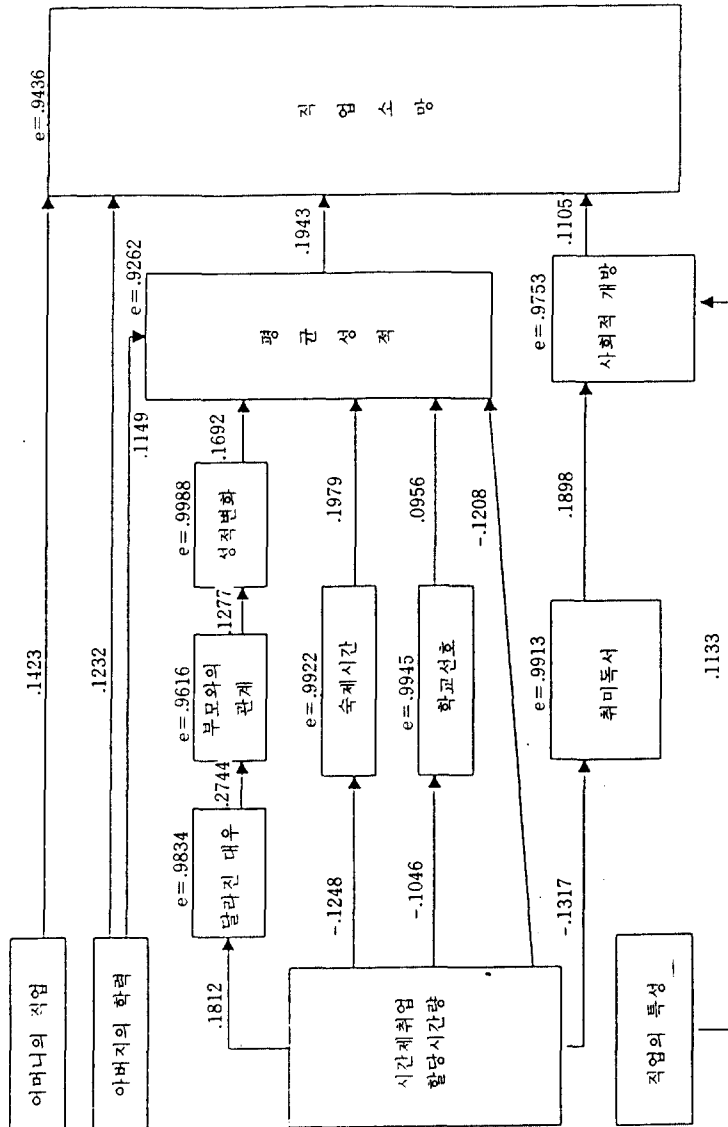
이와 같이 시간제취업에 할당하는 시간량과 부적인 상관관을 보이고 있는 세변수들은 학생들의 평균성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숙제하는데 소비하는 시간과 학생들의 성적과는 어느 변인들과의 관계보다 강한 정적상관( $r=.23$ )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에 중요한 상관관을 나타내고 있는 변인으로는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 $r=.19$ )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시간제취업을 위한 할당시간량은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에도 유의한 상관관이 있음을 〈표 2〉는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이 취업에 소비하는 시간과 달라진 부모의 대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 $r=.18$ )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이 일을 시작한 후 부모들이 일을 하기 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허락했다고 생각했을 경우 학생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전보다 우호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r=.27$ ), 우호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학생들의 학업을 증가시키는 관계( $r=.13$ )를 나타내고 있다.

학업성적을 예측하리라고 가정된 10개의 변수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결석횟수를 제외한 9개의 변인이 회귀변수들로서 중다회귀분석에 사용되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의해서 아홉개의 회귀변인들 중 다섯개의 변인들만이 학업성적 예측에 유의하다고 결론이 내려졌고 이들 다섯개

의 변수는 숙제를 하는 시간, 성적 변화, 시간제취업을 위한 할당시간량, 아버지의 학력, 그리고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였다.(그림 2참조).



<그림 2> 청소년들의 직업소망에 대한 경로모델

네개의 가족배경 변인 중 오직 아버지의 학력만이 학업성적이 회귀변인으로 포함되었고, 숙제를 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가장 큰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취업에 소비하는 시간은 직접효과 뿐 아니라 숙제를 하는데 소비하는 시간과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 그리고 부모들의 달라진 대우등을 경유하여 학업성적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다섯개의 회귀변수들을 이용하여 설명되는 학업성적에 대한 분산은 13.43%이다.

### 3. 일에 대한 태도

사회적 개방태도와 청소년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직업의 특성과의 상관관계( $r=.16$ )와 또한 취미로 하는 독서에 쏟는 시간과의 상관관계( $r=.20$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취업에 쏟는 시간과 사회개방태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사회개방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갖고 있는 취미로 하는 독서에 쏟는 시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 $r=-.13$ )이 있음이 밝혀졌다.

취미로 하는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과 직업의 특성이 회귀변인으로 사용되어 중다회귀분석이 이루어졌고, 그 분석 결과 사회개방태도에 대한 분산의 4.7%가 두 변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나타났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가족배경변인과 시간제취업의 경험이 그들의

직업소망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모델은 Blau와 Duncan(1967)의 직업소망에 대한 기본적인 경로모델을 기초로 하였고 Steinberg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간제취업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배려하여 〈그림 1〉과 같은 경로모델이 세워졌다.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경로모델은 381명의 시간제취업중인 고등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중다상관관계와 여러차례의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되었고 그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검증결과 어머니의 직업정도, 아버지의 학력, 학생들의 학업성적, 그리고 일에 대한 사회적 개방태도가 학생들의 직업소망을 예측하는데 직접적이고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유의한 변인들로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미래의 직업소망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다른 변인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학생들의 학업성적에는 아버지의 학력, 성적변화, 숙제를 하는 시간, 그리고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가 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일을 하는 시간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간제취업을 위한 할당시간량은 또한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데 소비하는 시간량,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에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경로분석 결과 밝혀졌다. 학생들이 시간제취업에 소비하는 시간량이 학업성적과 관련된 변수들에게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학생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갖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시간

제취업 시간량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취업 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하는 것과 비례한다. 부모들이 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대우를 달리해 줌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호전되고 이 관계의 변화는 다시 성적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나타났다. 학생들이 시간제취업에 쏟는 시간량은 그들이 취미로 하는 독서시간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취미독서시간과 직업의 특성은 일에 대한 사회적 개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위와 같은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족배경의 변인들중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수준과 아버지의 학력이 학생들의 직업소망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회귀변수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arini(1972, 1974)의 연구결과인 어머니의 직업지위가 자녀들의 직업소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들의 직업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는 선행연구 결과(Banducci, 1967)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취업여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사회경제적인 척도를 이용한 것이기에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영향이 보다 세밀하게 연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인 어머니의 직업수준이 청소년들의 직업소망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가족배경이 그 가족성원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고 하는 Kerckhoff(1972)의 결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위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직업수준이 청

소년들의 직업소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들의 취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요즘에 와서는 어머니의 직업수준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지위개선에 기여하는 바율이 점차로 높아짐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배경 변인들 중 아버지의 학력이 직업소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 결과(Shapiro & Crowley, 1982)를 지지하는데 아버지의 교육은 사회경제적인 배경보다는 교육이나 양육, 훈련에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Liebowitz(1977)가 그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정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에 직업소망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아버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 의한 증명이 요구된다.

둘째,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그들의 장래소망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위획득론자들이 주장하는 고등학교 시절의 학업성취는 장래의 직업소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이 다른 어떤 변수보다 직업소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Marini & Greenberger, 1978)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에 속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구상이 이상적인 희망에 의지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능력에 더욱 치우친다는 Super(1967)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덧붙여서, Hout와 Morgan(1975)이 학업성적은 가족배경과 자녀들의 직

업소망간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듯이, 학업성적은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청소년들의 직업소망간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셋째, 학생들이 시간제취업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량은 학업참여 변인들(숙제하는 시간량과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 취미로 하는 독서시간량, 그리고 학업성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Bateman, 1950, Steinberg, 1982a, 1982b)를 지지하는 것이다. 시간제취업에 종사하는 것이 학업성취와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Bowles & Gintis, 1976, D'Amico, 1984)들과는 불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인다. 취업에 소비하는 시간이 학업참여도에 관련된 변인들과 학업성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직업의 특성에 따라 일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두 변인들이 미래의 직업소망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는 조기 취업경험이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태도나 앞날의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Steinberg와 Greenberger(1980)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현재의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과 장래에 종사하고 싶은 직업대상과를 분리시켜서 이해하고 평가하는 현상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끝으로 시간제취업 시간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Peters, 1987, Steinberg & Greenberger, 1980)를 지지한다. 청소년들의 시간제취업 경험이 본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전보다 많은 자유를 허락해줌으로써 자녀

들을 보다 자립적인 개체로서 파악하고 대우하게 된다는 것을 엿보게 한다.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달라진 대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직업소망을 높이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Howell과 Frese(1982)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들로, 주로 백인중심의 농촌지역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집단에다 본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는 것이다. 각 지역과 인종을 추가적으로 이용하고 배려하여 본 연구의 경로모델이 검증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문화집단간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는 것도 가치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유사점과 차이점도 연구되어야 할 일이다.

둘째,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소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변인들이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장래 교육에 대한 계획이나 교사들과 동료들의 기대 등은 그들의 장래의 직업소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결혼과 관련된 변인들이 그들의 직업소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혼은 언제 할 것이며,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직업을 가질 계획인지, 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같은 계획을 지니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미래의 직업소망과 관련지어 더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시간제취업에 할당하는 시간외에 그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현장에서 동료관계와 상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하는 문제들 또한 직업의 특성과 더불어 시간제취업의 경험이 학생들의 장래 직업소망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직업만족도와 그 정도, 원인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자료는 학생들 본인 스스로 설문지에 답한 내용을 사용한 것이다. 보다 신뢰도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과의 면접, 교사와 부모들의 자료가 첨가되었다면 본 연구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경로모형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연구대상자들을 무작위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두집단으로 나누어 놓은뒤에 검증이 실시되었다면 본 연구의 경로모형의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변인들을 다루고 있는 본 연구에서 대상자 381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중다회귀분석의 실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연구대상자를 이용하여 본 경로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종단적인 연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지도하는 교사들과 상담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부모와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들에게도 교육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의 주요정보와 시사적 영감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제시된 내용은 고등학생들의 가족배경과 시간제취업의 경험, 그리고 학업성적이 그들의 직업소망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

여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용한 자료로서 학생들의 활동의 장인 가족, 학교, 사회, 그리고 학생 본인들에게 활용되어 질 수 있다. 향후 보다 많은 유관 연구성과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가치있는 자료가 부모들이나 교육가들에게 많이 제공되고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Banducci, R. (1967). The effect of mother's employment on the achievement,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f the child.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6, 263-267.

Bateman, R. (1950). The effect of work experience on high school students' scholastic achievement. Occupations, 41, 129-148.

Behn, W. H., Carnoy, M., Carter, M. A., Carin, J. C., & Levin, H. M. (1974). School is bad: Work is worse. School Review, 83, 49-68.

Blau, P. M., &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Bowles, S. & Gintis, H.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Basic.

Bucknam, R. B. (1976). The impact of EBCE: An evaluator's viewpoint. Career Educational Journal, 33, 32-37.

Carnegie Commission on Policy Studies in Higher Education(1980). Giving youth a better change. San Francisco:

- Jossey-Bass.
- Caro, F. G. (1965).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A reexamination of the bases of social class differences in the occupational orientations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49, 465-475.
- Clifford, D. M. (1992). Gender-based differences in high school employment: Is there differential socialization for wor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 D'Amico, R. (1984). Does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impair academic progress? Sociology of Education, 57, 152-164.
- Goslen, M. A. (1989). High school employment experience and work related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Greenberger, E., & Steinberg, L. (1986). When teenagers work: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adolescent employment. New York: Basic Books.
- Greenberger, E., & Steinberg, L. (1981). The workplace as a context for the socialization of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185-210.
- Haller, A. O., & Portes, A. (1973). Status attainment processes. Sociology of Education, 46, 51-91.
- Hamilton, S. F., & Crouter, A. C. (1980). Work and growth: A review of research on the impact of work experience on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323-338.
- Hamilton, S. F., & Steward, S. K. (1980). A multi-method approach to research on youth employment programs: A case study of the youth conservation corp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 185-208.
- Hammond, W. A. (1971). Part-time student employment: A positive view. NASSP Bulletin, 63-70.
- Hout, M., & Morgan, W. R. (1975). Race and sex variations in the causes of the expected attainments of high school senio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 364-394.
- Howell, F. M., & Frese, W. (1982). Making life plans: Race, gender and career decisions. Washington, D. 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Kerckhoff, A. C. (1972). Socialization and social clas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Kohn, M. L., & Schooler, C. (1973). Occupational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n assessment of recipro-

- 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97-118.
- Krumboltz, J. D. (1981). A 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selection. In D. H. Montross & C. J. Shinkman(eds.), Career development in the 1980s: Theory and practice.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 Leibowitz, A. (1977). Parental inputs and children's achieve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 242-251.
- Little, J. K. (1957). A statewide inquire into decisions of youth about education beyond high school. Madison: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 Mangum, G., & Walsch, J. (1977).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for youth: What works best for whom? U. S. Department of Labor,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Marini, M. (1978). Sex differences in the determination of adolescent aspirations: A review of the research. Sex Roles, 4, 723-753.
- Marini, M. M. & Greenberger, E. (1978). Sex differences in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s, 5, 147-178.
- Mortimer, J. T., & Finch, M. D. (1986). The effects of part-time work on adolescent self-concept and achievement. In K. Borman and J. Reisman, (Eds.), Becoming a worker, Norwood, NJ: Ablex.
- Mortimer, J. T., & London, J. (1984). The varying linkages of work and family. In P. Voydanoff (Ed.), Work and family, Palo Alto, Calif: Mayfield Publishing Co.
- National Commission on Youth(1980). The transition of youth to adulthood: A bridge too long. Boulder, Colo.: Westview Press.
- Reitzes, D. C., & Mutran, E. (1980). Significant others and self-conceptions: Factors influencing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academic performance. Sociology of Education, 53, 21-32.
- Schill, W. J., McCartin, R., & Meyer, K. (1985). Youth employment: Its relationship to academic and family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6, 155-163.
- Shapiro, D., & Crowley, J. E. (1982).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f youth in the United States, part 2: Employment activity. Youth and Society, 14, 33-58.
- Sinclair, K. E., Crouth, B., & Miller, J. (1977). Occupational choices of Sydney teenagers: Relationships with sex, social class, grade level and parent expectations.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21, 41-55.
- Steinberg, L. D., & Greenberger, E. (1980). The part-time employment of high school students: A research agenda.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2,

159-183.

Steinberg, L. D., Greenberger, E., Gardugue, L., & McAuliffe, S. (1982). High school students in the labor force.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4, 363-372.

Steinberg, L. D., Greenberger, E., Gardugue, L., Ruggiero, M., & Vaux, A. (1982). Effects of working on adolesce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85-395.

Steinberg, L. D., Greenberger, E., Vaux, A., & Ruggiero, M. (1981). Early work experience: Effects on adolescent occu-

pational socialization. Youth and Society, 12, 403-422.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Super, D. E. (1981). A developmental theory: Implementing a self-concept. In D. H. Montros & C. J. Shinkman (Eds.), Career development in the 1980s: Theory and practice(pp. 28-42).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Van den Daele, L. (1968). A developmental study of egoideal.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8, 191-256.